



배종하 국장
농림부 국제농업국

한·미 FTA 제5차 농업분야 협상 결과

한해를 보내며 올해가 어떤 해였을까 되돌아보면 흔히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는 말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바뀌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한 해라도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마음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생각하면 2006년도는 조용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다섯 차례 협상을 돌아보며

2006년 2월 협상 시작 선언이 있었고 6월부터 다섯 차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다섯 차례 협상이 있었으니 다른 FTA협상과 비교하면 굉장히 자주 만난 셈입니다. 당초 협상을 시작할 때 1년 안에 협상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의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경제적 이해가 날카롭게 부딪치는 일이라 생각만큼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역시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차례 만나면서 이제 정리될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고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관세양허가 핵심... 민감 품목 논의

제5차 협상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주(州)의 빅스카이(Big Sky)에서 열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광활한 땅에 하늘이 넓게 열린 곳이 빅스카이입니다. 비행기를 네 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차로 한 시간 이상 달려 집 떠난 지 24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황량한 산 속에서 며칠을 보내니 된장이 그림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동네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눈 덮인 록키 산자락은 장관이었습니다.

농업분과 회의는 나흘 동안 있었습니다. 농업분과는 무엇보다도 ‘관세양허’가 핵심입니다. 즉 농산물의 관세를 어떤 방법으로 줄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섯 차례의 협상을 했고 8월에는 관세양허안을 서로 교환했고 10월에 가진 4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양허안을 한 차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렵고 민감한 품목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감하지 않은 품목들은 대개 정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비교적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들입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철폐하기 어려워니 다양한 예외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미국은 반대로 어떤 품목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 이제 남은 협상의 핵심은 이 민감한 품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아직도 우리 관세양허안에는 기타(undefined)로 분류된 품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입장을 굽히거나 양보한 것은 없지만 반면에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감한 품목의 처리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토대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셰이프가드, 수입쿼터(TRQ) 관리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차 협상은 어떻게?

해가 바뀌어 이제 협상도 막바지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은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고 목표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상이 모든 분야에서 최종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최종 합의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농업은 이제 남은 민감한 품목들의 처리방안이 협상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6차 협상에서는 민감한 품목들의 처리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FTA를 한 경험이 있고 그 때마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외적인 조치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과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미국도 우리 농업이 얼마나 민감한지는 잘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축산물이 제일 민감하고 또 영향도 큼니다. 미국도 축산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미국의 최대 수출농산물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한우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농가들이 한우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축산물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6차 협상은 오는 1월 15일 주간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온 길 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험난하지만 초지일관 우리 입장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